

2024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7.25. 14시30분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7/10	3	1	11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손영준, 안호림, 서신석, 진한수,
안성희, 이상현, 이성우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국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 경영진 외 : 시청자센터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7	-	-	-	17	-	17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7	-	-	1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이슈 오늘]에서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예상되는지'라는 앵커의 질문에 대한 패널(변호사)의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보도전문채널에서 형량을 줄이고 회피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안성희 위원)	대담 패널이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상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불편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패널에게 앞으로는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4.6월 조치>	'24.6월
보도	경제계 소식을 간략히 소개하는 비즈&(앤) 코너를 봤습니다. 여러 기업의 해외 수상이나, 친환경 활동, 업무협약 등 다양한 소식을 담았고, 기부나 봉사활동, 후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 뉴스가 다루기도 어렵고, 시청자들도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이처럼 간략한 기업 소식 전달이 보다 쉽게 경제 분야를 터치할 수 있다는 점, 더구나 사회 전반에 기업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유익한 코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서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비즈&(앤) 코너는 경제부에서 기업들의 현안과 트렌드를 통해 다양한 기업활동을 시청자에게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주로 기업의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기부 활동이나 사회공헌, 후원 활동 관련 소식을 7월 중(사회공헌법인 커넥트재단, 팔도 사회공헌 활동단체, 라이나생명 사회공헌기금으로 100억 출연 등)에도 소개를 지속하였습니다. <24.7월 조치>	'24.6월
총 건수		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4. 01. 01.~ '24. 12. 31.)'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심평변호사	-	18.7.1.~24.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	21.11.01~25.10.31
안지연	1989.06.27	(현)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	23.02.01~25.01.31
박세진	1981.08.06	(현)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4.8월 마지막 방송 예정	23.06.01~25.05.31
최미연	1983.09.05	(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전임연구원	신규 07.25선임	24.09.01~26.08.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선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4. 1. 1.~ '24. 12. 31.)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손영준	현)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전)국회 언론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부위원장	안호림	현)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편집위원	성정문화재단	문화	
위원	허인순	현)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전)한진엔지니어링 설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	
위원	서신석	현)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무총장 전)한국유비쿼터스협회 부회장	전국학교운영위원 연합회	학부모 단체	
위원	강건기	현)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 단체	
위원	진한수	현)법률사무소 익선 대표변호사 전)서초경찰서 상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안성희	현)선진노무법인 부대표 전)서울특별시 마을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 단체	
위원	이상헌	현)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전)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위원	이성우	현)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지원실 과장 전)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외협력실 과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등 소외단체	
위원	박화선	현)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 전)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부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변 동 사 항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여러 개의 화면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영상 편집자 이름만 명기해 그것이 자체 촬영인지, 제공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7, 8월이면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공중파 방송 한 곳이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재난 보도에 주관, 비주관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연합	리포트에 제보 영상을 넣을 때에는 항상 해당 영상이 나올 때 시청자 제공이라는 자막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청자 성함까지 넣습니다. 시청자 제보자 중에서는 성함 노출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셔서 그냥 시청자 제공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보면 KBS만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럼에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뉴스TV가 회사 역량에 맞게 '시청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 방송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해 대비한다면 더욱 알찬 뉴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영준 위원장)	도 불구하고 재난주관방송사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날 비가 많이 왔을 때에도 저희가 KBS 이상으로 열심히 재난방송을 해서 그 당일 시청률도 닐슨 조사에서 지상파 포함 전체 4위로 나왔습니다. KBS1, MBC, TV조선 그 다음에 저희였는데요. 이렇듯 많은 시청자들이 연합뉴스TV를 시청해 주시기에 앞으로도 재난 주관방송사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재난 방송 매뉴얼은 자사가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재난 재해 보도에 필요한 보도준칙을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p>보도 *시청자 불만활용</p>	<7월 1일 10:51 뉴스포커스> 민주당 측 패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가 "배신자 프레임의 주체가 누구였나" 하면서 설명 도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할 때 "박근혜 씨와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보수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박힌 돌입니다. 뿌리 깊은 박힌 돌이에요. 상징성과 보수의 정통성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와 같은 그런 보수의 상징성이나 어떤 정통성 면에 있어 박근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방송 출연자로서 존칭과 직책 사용을 하면 패널에 대한 공신력이 더 높아 보일 것 같습니다. (안호림 부위원장)	패널들 발언을 저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발언 때문에 저희 TV의 공정성 내지는 품위가 손상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마다 시각은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특히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존칭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패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설명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저희 방침에 따라주시도록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널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교체시 반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p>보도 *시청자 불만활용</p>	<7월3일 06:31 진기훈 기자 리포트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여사 영향 관심>보도에서 '돈 주인'인 한자어인 '전주(錢主)'를 전라북도 '전주(全州)'	장단음을 구별하는 문제는 사실 일반인들은 쉽지 않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아나운서들은 구별을 잘 하겠습니까마는, 기자들도 약간 좀 일반인에 가깝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처럼 길게 발음하여 시청자에게 자칫하면 다른 내용을 보도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발음에 좀 더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안호림 부위원장)	교육을 받지만, 아나운서만큼 전문적인 교육을 오래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방송하는 기자들은 시청자에 대한 국어 교육 차원에서라도 아나운서 못지않은 우리말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자들에 대해서 우리말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도	'사상자 13명' 시청역 사고 현장...참사 흔적 그대로, 기자의 발음이 부정확해 가해자 나이를 잘 알아들을 수 없었고, 사고 주변 설명 시 불안한 진행이 아쉬웠습니다.(허인순 위원)	당시에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기자가 현장연결을 하다 보니 좀 당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쫓기는 느낌에 방송을 해서 발음을 또렷하게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송기자는 전달력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방송에 투입하기 전에 신입 기자들은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출근길 인터뷰] "일보는 동안 아이 1시간만 맡아줬으면..." 서울시청 여성가족실 특화보육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기존의 어린이집 유효 공간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며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이용료는 1시간당 2000원이며 하루 최대 4시간, 월 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서울 전역 확대 예정, 특히 일하는 엄마들, 마땅히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던 엄마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관 주도의 이런 실질적인 보육 서비스 시스템이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허인순 위원)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더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연합뉴스TV가 사회적 추세인 저출생 용어와 기존 사용했던 저출산 용어의 뜻을 잘 구분하여 사용했으면 한다. 또한 앵커나 기자들이 뉴스 보도를 할 때 본 용어의 뜻을 명확히 인지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서신석 위원)	저출산하고 저출생의 어떤 차이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흔히들 저출산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임명을 처음으로 했는데 이제 인식이 좀 바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전달해서 저출생으로 쓰도록 공지하겠습니다.	○		
보도	7월 9일 라이브 투데이에서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는 짧지만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의 주제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참석하는 해외 석학들과 국.내외 과학기술인 2000여명이 참석한다는 소식과 주요 행사 내용도 잘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과충이 무슨 연합회인지 잘 모르는 시청자를 위해 기관 소개도 함께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강건기 위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단체 같은 경우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줄이라도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친절한 보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초저출산 시대 위기 해법은..."사회 개혁 함께해야", 초저출산과 초저출생에 대한 보도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사의 경우 기자의 새로운 시선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관련 조직이나 기관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하려는 기자의 노력도 엿보였습니다. 다만 두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져 아쉬웠습니다. 한 전문가는, "핀란드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사례들을 받아서, 줄 세우기 식의 입시 위주의 교육 말고 학생들의 창의성이라든지 공동체성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전반적으로 리포트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가급적이면 애매하고 추상적인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고 구체적인 부분을 넣는 게 시청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텐데요. 아마 해당 주제에 대해서 기자가 좀 심도 있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대상자가 좀 애매모호한 말을 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잘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추상적인 얘기만 계속 하셨으면 질문을 좀 달리해서 사례를 짚어달라는 등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시청자에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수 있는 유연성이나 어떤 탄력성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라는 조언을 전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향후 저 출생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현재 입시 위주에 머물러 있는 교육 현실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정도로 해석되는데, 긴 문장을 한 번에 전하다 보니 전달력이 다소 아쉬웠습니다.(진한수 위원)	게 도움이 되는 원하는 멘트를 받아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기자가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하고 좀 더 성의 있게 리포트를 만들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보도	면허시험장 즐기는 고령 운전자들... 시청역 사고 ‘급발전’ 가능성 물으니 - 7월 09일, 며칠 전 시청역 앞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여론 형성에 소외되었던 고령 운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인터뷰는 시의적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과 달리 고령 운전자들은 주변의 우려의 시선 등으로 운전은 소심하고 안전하게 한다고 주장을 하며, 사고의 원인은 나이 탓이 아닌 운전자 개인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은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측면과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며 여전히 존재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니 만큼 후속취재 및 보도를 통해 이성적, 합리적으로 대중의 중지를 모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속 취재 기대합니다.(박화선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사회 고령화로 계속 문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렇다고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운전을 제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나 아무튼 위험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묘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전문가들 취재를 통해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위원)				
보도	<p>[다다를 인터뷰]"급발진, 억울한 피해 없어야죠" 어른들 뼈 때린 고교 발명왕 - 7월 16일</p> <p>최근 가해자가 급발진으로 주장한 충격적인 교통사고 및 차량 내 각종 전자장치의 증가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회사는 정확한 원인 및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선의로 시작한 '급발진 확인 장치' 발명품은 23년도 대통령상까지 받으며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한 대단한 발명품을 통해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도에 완성된 발명품인데 이것이 실제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급발진을 검증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보도도 기대합니다.(박화선 위원)</p>	<p>최근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를 많이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급발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p>			
보도	<p>김정은, 삼지연시 현장 시찰...간부 고강도 질책, 2024.7.14. 오후 6:55, 동</p> <p>기사는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시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 감독을 질책하고 처벌을 지시했다는 기사인데요, 감독을 어떻게 질책하고 처벌하라고 했는지는 나오는데 질책한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다른 기사를 찾아보고 나서야 '새로 지은 국내 관광객용 여관을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와는 근본적으로 대치되게 낡고 뒤떨어진 기준으로 허술하게 시공', '신설 건물을 비정상적으로 개건·보수할 필요가 생겨 경제적 손실이 초래' 등의 사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뉴</p>	<p>북한 동향을 소개하는 보도인데요. 아마도 단순하게 동향을 설명하는 그런 보도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시청자들이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줄 정도는 저희가 더 넣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스가 반쪽짜리 뉴스였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박화선 위원)				
보도	(경제) '나홀로 사장들' 문 닫는데...최저임금 1만 원 시대 (7/15) 이미 지난해에만 사업자 100만 명이 문을 닫았는데, 내수 부진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사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접어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최저임금을 연결 짓는 방식의 보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연합뉴스TV에서 심도 있는 내용을 기획해 보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안성희 위원)	최저임금 문제는 양측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 이슈입니다. 저희가 어느 한 쪽 편을 들거나 이러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장과 분배의 철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지적해 주신 '나홀로 사장들 문 닫는데...최저임금 1만 원 시대'라는 스토리 전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홀로 사장하고 최저임금하고 이렇게 직접 연관은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 어려움과 최저임금 연결을 짓는 것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하나의 빌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영업자들이 아주 소수의 피고용자들을 고용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언급했던 것이구요. 이거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보도	[날씨속 과학속] 임계치 다다른 토양...한반도 '산사태 주의보', 장마철을 맞아 폭우로 인한 침수 등 피해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13일 '날씨속 과학속'에서 지금처럼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산사태'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다루고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장면을 보여주면서 산사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그 위험의 정도를 실험 장면과 함께 보여주고 있어 이	최근 장마, 폭염 등 현 시점에 관심이 높은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해가 쉬웠고, 특히 자신이 사는 곳의 산사태 위험등급을 산림청 '산사태 예보 발령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장마철 피해 예방에 시의적절하게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안성희 위원)				
보도	[사건속으로]에서는 전 경무관이 출연해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낮추면서 발생한 2차 부작용(구호조치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례)와 미국의 경우 음주 단속 기준(0.08%)을 낮추지 않고 처벌 강화, '음주운전 억제책 아닌 방지책으로 단속', 음주 전력 있을 시 음주단속기 설치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자료화면이 '(음주)단속'을 연상시키는 화면 외 차량 전시·판매점 등 의미 없는 화면으로 반복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안성희 위원)	자료화면 편집이 다소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네요. 그래픽 같은 것도 넣고 좀 다양화시켰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 차량 전시나 판매점은 전혀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착각한 것인지 알아보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보도	지난 7월 11일, 'OECD "한국 경제 부진에서 벗어나"... 저출산 심각 경고'보도 관련입니다. OECD가 발표한 경제보고서 내용을 다뤘는데요. 자막과 기자의 리포팅에만 의존하다 보니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국경제와 관련해서 세수, 고령화, 연금개혁, 외국인 투자 개방, 저출산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해서 보여줬다면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경제 관련 뉴스는 좀더 정보전달에 유의하면 좋겠습니다.(이상헌 위원)	OECD 경제 보고서 같은 것은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하면 방송 리포트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런저런 팩트의 나열이고 또 전문적이어서 리포트로 만들었다고 해서 시청자들이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관심을 주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짧게 단신 처리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리포트를 한다고 하면,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이해하기 쉬운 특정 부분을 잡아서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쪽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도	뉴스보도에 쓰이는 인포그래픽 활용	제안하신 것처럼 인포그래픽들을 모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포그래픽이 복잡한 정보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인데, 방송이 나가고 나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재사용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보도에 활용된 다양한 인포그래픽을 모아서 아카이브를 만들고,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공하면 재사용도 가능하고, 시청자나 관계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뉴스 보도와 시청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현 위원)</p>	<p>아서 아카이브 만들고 이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카드 뉴스 같은 거 유행하잖아요. 사실 카드뉴스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주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p>			
<p>보도</p>	<p>출산 장려금에 공채 몰려...기업도 '일·가정 양립' 추세(7.1.) 공영성을 지향하는 보도전문 채널에서 기업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자칫 몇몇 특정 기업을 위한 광고 홍보성 기사 보도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단 우려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심각한 저출생·고령사회의 문제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침 7월 9일에는 '아이 낳으면 1억' 인천시, 이번엔 '임대료 1천 원' 주택?, "청춘남녀 모여라"...성남시의 신박한 저출산 극복 대책과 같은 지자체 사례도 소개를 했는데, 이 내용 역시 좋았다고 칭찬합니다. 연합뉴스TV가 노파심을 조금 뒤로한 채 기업과 공공 분야를 가리지 말고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만한 좋은 사례는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성우 위원)</p>	<p>산업 부문 경제뉴스의 경우에는 홍보성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면 기사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성 문제하고 또 이런 오해받을 여지, 이 부분을 잘 비교 형량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기사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을 기사화하면서 저희가 완벽하게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논리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 저희 나름으로 명분을 설명할 수 없다면 홍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p>			